建築用語와 関聯하여 日常的인것들

玄 錫 洪
(한양建築設計事務所 代表)

来浦項 於焉間 3年, 見聞之事를 自省키 為하여 이에 日記的으로 抄録한다.

배울 것은 배워야 될것이며, 얼빠져, 自主性이 缺如된 行動을 하는者 없을 것이다.

奔忙타 보니 이런일 저런일이 생기나 보다.

願知行. 一日一省 為時義道德也.

여기는 浦項이다.

浦項은 慶尚北道 千年古都인 慶州에서 東北方으로 32km 떨어져 東海岸 迎日郡에 둘러쌓여 迎日湾을 끼고 우리나라 자랑거리중 하나인 浦項綜合製鉄工場을 안고 있는 곳이다.

浦項市 地方을 中心으로 그 沿革 変遷된 것들을 三国遺事 三国史記 迎日郡邑誌와 主로 日月郷誌에 의거 대강 간추려 본다.

浦項綜合製鉄工場附近에는 新羅 阿達羅王 4年 (西紀158)에 延烏郎 細烏女 이야기가 담긴 日月池가 있다.

이 고장에서 남쪽 海岸으로 경주보다는 좀먼곳에 新羅 文武王(즉위 西紀 661年)이 倭兵을 진압하려 절을 짓다가 마치지못하고 돌아가 海龍이 되었다. 그 아들 神文王은 遺詔에 따라 藏骨한 곳을 大王岩, 畢役한 절을 感恩寺(복원중)라 하였고, 그 龍이 現形한 곳에 利見台(복원중)를 세웠다.

本是 경상북도 일대는 辰韓族땅 이였다. 新羅初創時代부터 郷号를 斤烏支縣, 良烏友縣과 退火縣一部, 義昌臨汀縣. 고려시대에 興海 延日県, 이때에 通洋浦에 万戸鎮基를 設置, 后에 管軍万戸를 兼케함. 李朝時代에 延日郡과 興海郡一部, 그 鎮営을 設置 兵馬使를 兼케함. 国恥后 1914年에 迎日郡 浦項面 浦項邑. 光復后 1949年에 浦項府가 이튿날 浦項市로 되었다. 浦項이라는 郷号는 高麗末期의 通洋浦와 兄山項에서 浦字와 項字를 따서 浦項이라 하였고, 迎日湾은 阿沽等辺 芹鳥支辺 魚龍湖 魚龍潭 龍潭 龍潭湾으로 부르다가 日帝때 迎日湾이 되였다.

이고장 山川이 肥沃 하다. 松林도 울창하여 海物도 풍요롭다. 山紫水麗하여 詩人墨客들이 즐겨 찾으니 水雲崔斎愚와 晦斎李彦迪의 竹山記文도 있고. 梅朶山上에 四時長流不渇의 天地가 있다. 真平王의 逍遊処였었던 安址山 神仙이 鶴을 불러 놀았다는 呼鶴山. 夜半子時에 鶏鳴聲이 呼鳴山. 四越嶺에서 金을 캐고. 陽地達谷에서는 磁器굽고, 陰地峠에 三日山祭 올리면 人参 얻고. 禱蔭山 泉谷嶺下에 薬水로 善徳王이 病났고 慈蔵으로 전설적泉谷寺를 세웠다. 雲梯山下 恒沙洞 恒沙寺는 恵空·元暁 이야기로 吾魚寺가 되였으나 오늘도 그 동네는 恒沙洞. 浮海来하였다는 独山은 떠들어온 탓이여서인가 新羅 奈勿王 38 (西紀 393)年에 倭賊을 격파한 격전지.

先史時代로부터의 遺蹟址 支石墓郡도 散在해 있다.

此地方 輩出 人物들은 新羅時代로부터 近世에 이르기까지 偉人 道師 相臣 名儒 忠義 倡義(義擧)孝友行 孝烈 學行 慈善 篤行 等으로 師表와 指標的인 人物들의 행적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忠義조중에서 한분만 든다면 포은 鄭夢周가 鳥川人이다.

倭寇들이 有史以来 이 地方沿岸을 経由 侵略한 기론은, 新羅 赫居世王 8年(西紀前 50)부터 侵入을 시작하여 高麗末葉까지 国防力이 完璧할 때에는 敢이 侵犯치 못하고 紀綱이 解弛하여 政事가 紊亂한 틈을 타서 暴虐無道한 海賊행위가 62次로 나타나 있으나, 嗚呼哉 権近의 興海邑城記와 李崇仁의 延日邑城記를 보라. 生을 이땅에 받은 者 어찌義憤을 참을 수 있으랴 倭賊이 한번 지나 가는 곳.沿岸 州郡을 屠焼 人民을 殺虜 掠奪 3～4歳女児는 배(腹)를 갈라 제물로 草木도 안남아 廃墟化 되였다. 李朝時代에도 그 数 헤아릴 수 없이 심하였으며, 壬辰倭亂 7年과 日帝 50年 동안 우리祖上들이 피 흘리면서 당하기만 하였다. 良順한 白衣民族은 有史以来 単한번의 報復도 없었다.

곳곳에 烽燧台址와 山城有蹟址 들이 있다. 倭寇 三幕府의 幕后人物인 倭僧玄蘇가 임진왜란 2년전인 宣祖 23年부터 우리나라에 드나들때 이고장에 와서 살펴 갔다.

壬辰倭亂때 이지방출신 倡義 擧兵, 殉国하여 그 有戦功으로 二等功臣 等이 16人이나 된다. 그분들의 戸税之所 斎室과 書院 들이 서있다.

雲住山는 山南義陣抗日戦争의 根據地였었다. 香爐峯(영일군北主鎮山)에는共産軍게릴라부대를 討伐하노라 우리軍警青年団同志 들의 희생도 많이 났다.」

우리 彊土를 錦繍江山이라 했다. 到処에 有青山이라 이고장도 그렇다는 것이다. 人物輩出에 있어서도 他地方도 비슷 할 것이며, 倭賊들한테 당한 殺虜 掠奪 蹂躙들은 地域的 차이는 있을것이나 이 또한 비슷 할것이다. 国亂이 있을때마다 나라와 겨레를 지키노라 사라져간 義로운 분

들이 수 없이 이어져 왔다. 그 姓名三字조차 알길 없는 선열들, 우리는 그분들의 後裔인 것이다.

以上과 같은 浦項地域은 1962年에 国際開港場地域 67年에 浦項工業団地指定 68年에 浦項綜合製鉄工場設立과 聯関工業団地 擴張으로 5～6万정도의 人口가 急激한 발전으로 現在20万 人口를 헤아리게 되였고, 大臨海工業都市로 将次 50万人口의 힘찬 前進을 하고 있다.

그에 따라 浦項 거리는 바쁘다. 外国人들도 많이 드나드는 거리이기도 하다.

市內 거리에 시멘트가공업 看板에 그 製品名中 "데스리'라는 것이 눈에 걸린다. 뭘까? 그것은 欄干살 대신 使用하게 된 것인데 간단한 紋様따라 궁창 비슷하게 透過시킨 일종의 시멘트블록이 였다. 또한 쌓기만하면 난간을 이룰수 있게 되었다.

欄干이라는 것을 몰라서 저러했을까?.

3年前기억이 난다. 서울변두리 로변에 석가래材木 같은 것을 세워 쌓은 무더기에 "足場貸與"라고 써붙쳤던 것이다. "足場"이란「비계」를 뜻 했었으리라.

이 近方에서 가 볼만한 곳은 宝鏡寺라 해서 몇사람틈에 끼어 가보았다. 그 案內板에 宝鏡寺創造年代는 千九百余年前으로 거슬러 올라 갔다. 돌아보는 도중

—— 스님 어찌 "쇼지"를 달 았죠———

하는 소리가 들여 왔다. 요사채로 보이는 건축물의 퇴마루에서 방으로 드나드는 문을보고하는 말이였다. 완자문(卍字門) 같은 韓式門이 달릴데 였고, 堂宇中 팔각지붕인 네귀에 추녀가 걸여 있는데도 처마도련이 수평적이 였고, 諸棋들도 의심스럽다. 一柱門이 있다 했는데 어느것이 一柱門인지 몰랐었다. 이러한때 趙勝元先生님을 모셨드라면 생각 났다.

이절에는 国宝 제391호인 圓直国師碑가 있다.

前記한 日月鄕誌에서는「三寺宝가 있어 一曰圓真 国碑 二曰圓真国師浮屠塔 三曰四溟大師金堂記이라 하였으나 그는 有名化하기 위한 腐儒 妖僧 들의 위설과 誤記의 작난으로 위조한 것이라 단정 한다」고 고증들면서 혹평 했다.

○事務室에 준공신고차 近60세 되어 보이는 분이 와서 하는말중에

…… 오사마리(마무리) 다 안됐죠 …… 라고 하기에

— 저 젊은이들은 그게무슨 소린지 모릅니다. 고 했으나 그는 무표정?

○女職員 Y 양이 그의 친구와 대화중

… 어제 저녁먹은 것이 "아다리"돼서 … 라고, 체(식중독)했었다는 뜻의 말이 였었다.

○그 Y 양이 그들끼리 주고 받는 말중에서

… 그건 "기스"(흠집) 나면 못써 … 라고.

그러한 일어정도는 다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였다.

○석유통에 석유를 넣으면서 어느정도 들어 갔는가? 에 高校生(야간)丁君이

… 입빠이(가득이) 찼어 … 라고, 가득이라는 말을 모르고 했을까 그렇지 아니했다.

○— 잠간 뭐라 했지? 「심심」이라 했나「싱싱」이라 했나. 「싱싱」은 우리말이 아닐세—. 말을 중단당한중 L君 ···「싱싱」은 英語죠 … 라고. 자신있는 말투 였었다.」

그들은 壁中心線에서 상대편의 벽중심선까지의 거리 치수를 이야기하던차 였었다. 다들 工高卒以上의 学力을가진 젊은이들이 였다. 「싱싱」이라는 말이 日語인줄 전연모르고 使用했던 것이다.

日帝末葉 서울(그시절 京城)에서 釜山으로 출장갔었던 생각이 난다. 韓服차림의 흰머리낭자 할머니를 만났다. 내심 반가워 길을(조선말로)물렀다 의외에도 그노파는 일본말로 자세하게 길을 일러주는 것이였다.

○近者에 H君이「建築用語図解辞典」을 구입 했다. 그 바람에「建築用語集」「한국건축용어해설집」「建築用語辞典」「建築英語辞典」등이 한자리에 펼쳐졌다. 먼저 그 編著譯 하시노라 수고하신 先生님들께 감사드린다.

그 중에「건설공사현장속어집」이라 하여 부록으로 수록하신 先生님은 그로 가슴아팠으리라.

—이것은 …… 하면서 갈피갈피 넘기면서, 語往說來 했다.

이대로라면 초학자 들에게 혼란 일으킬 우려 있을것 같다. 特殊辞書라고 해서 다를바 없다. 사서中에 하나이다.

○우리를 지킨 수 많은 분들이 계시다. 우선 몇분 떠오른다. 연면히 흘러 有久한 역사속에 우리말은 많은 변천을 하면서 발전해 왔다.

言語 없는 国家와 民族은 있을 수 없다는 信念下에 그 日帝에 항거하면서「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펴내고, 우리 언어의 발전과 수호에 온갖 힘을 다하다가 순국한 義로운 学者들과 그 志士인 학자들은 오늘도 꾸준한 노력을 쉬지 않고 있다. 고귀한 피로 점철된 우리言語. 그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만이라도 갖어 보련다.

씨앗! 씨앗은 좋아야 한다. 세상 살아가자면 먹어야 산다. 과학적으로 그 초식물들을 개량해야 된다. 또한「씨앗의 식민지를 면해야 된다」는一念에 만난을 무릎쓰면서 노력했다. 그리하여 식종계에 金字塔을 세운분 禹長春박사. 그 온갖 역경을 이겨낸 闘志를 잊어서야 되겠는가?

己未年 三.一運動당시 19세의 青少年이 日帝에 수감되어 3年間의 獄苦를 치렀다. 손에 연장을 쥐고 韓式建築을 익히고, 독학으로 現代式建築을 배우면서, 그 子女侄보고 너 공부해라 한적없이 스스로 열심히 살아온 외골수 집념의 古建築家 趙勝元先生. 그의 솔선수범.

앞장서진 못할지라도 뒤는 따라가야 그에대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다시 생각 난다. 이 地球上에서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었던 日帝의 植民地政策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말살하려 했었다. 同祖同根을 부르짖으면서 日人(皇国臣民)이 되라. 創氏도 강요 했다. 그 당시 총독南次郎은 자기祖上은

韓国(朝鮮)의 南氏인지 모르겠다고도 했었다. 집에 나나드나 국어(日語)를 쓰도록 했었다. 그래서 말문까지 닫게 되는 판국이 되였었다.

1945年 8月15日 光復!이 왔다.

우리 光復軍과 임시정부 요인들도 돌아왔다.

倭賊들은 물러 갔는가.

그질곡의 쇠사슬은 끊어져 굴레를 벗어났다. 모든 것에 光復의 문이 열였다.

그러나 감격과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강토는 南과 北으로 분단되는 비극이 되었다.

西洋 물질문명은 물밀듯이 들이닥쳐 왔다.

그 渦中에서도 各界각층 有志들은 계속 노력을 한다.

갓 出獄한 최현배, 이희승 등 여러분의 어학자들은 부석부석 누렇게 뜬몸 돌볼사이 없이 「한글 강습」교단에 섰던 그 모습들이 눈에 선하다. 그분들은 「우리말 큰사전」도 펴냈다.

우리建築界에서도 힘을 모아 「建築用語集」에도 노력했다.

○日帝때 木手들은 소위 화양절충식일들을 배웠다. 光復后 그들은 입에익은 일본말 건축용어 들을 썼다. 일을 배우려는 자들도 선배 따라 그말 들을 사용했다.

어느 젊은 木手 말이 모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혼용 한다고도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축용어집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者가 대부분인 것 같다. 어떤 者는 그것 모른 다해서 어떠냐는 것 같다.

建築用材料들도 多様해 간다. 생소한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

木材만해도 국산품만으로는 도저히 아니되게 되었다. 그 木材를 다루는者는 옛날 지위(木材)가 아니다. 두사람이 아래위에서 큰톱질 하던것도 볼수 없고, 큰자귀도 없어졌는지 흰머리상투에 연암 파던 그老지위도 이젠 자취조차 찾을길 없고, 끌구멍 대패질도 옛날과 달리 산업화되어 간다.

○某木手가 일할사람을 천거하는데,

……이사람은 도비(비계)죠…… 즉 비계공의 책임자라는 뜻이 였었고.

…… 저는 쓰미(쌓기)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자는 벽돌쌓기 책임자라는 것이 였었다.

○ 야리가다(규준틀), 자부동(푸팅), 지쥬바리(지중보) 와꾸(문틀), 고야(지붕) 등 日語建築用語를 使用하는 층은 건설회사 H 간부도 같았다.

○ 某 工事場에서 T·V인터뷰에 시공業者側의 대답중 "단도리"(준비)라는 말이 방영되었다. 허허 저러니.

…… 라디오를 듯다가 "마"소리만 나오면 꺼버립니다…. 라고 하던 梁柱東박사가 생각났다.

10余年前에 K君에게 …… 세끼이다(푸집)라니 자네 大学졸업 했지 그나라 棟樑을 길러내는 곳인데, 그러면 누가 지도해 가나?……고. 했었다.

○ 우리도 이제는 잘살아 보자. 先進国대열에 끼기 위하여 바쁘다.

大形建築物들이 치솟고, 住宅改良에 취락구조개선 事業에, 衣食住는 一大 革新 되어 急進展하고 있다.

보람찬 役軍들은 그 産業化에 밤잠을 설치면서 또한所得増大에 쉴새 없다. 江물도 역수시키면서, 새마을事業은 運命共同体的으로 活性化 되어간다.

現在数十個 外国 사람들이 와 우리나라의 새마을事業을 배워 간다.

그 山川 골골마다 피는 꽃 들은 다르리…….

○ 建設工事에 対하여 이야기하다 보면 日語들이 끼어있다. 全部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 빈도가 전보다 더 느껴진다. 그말들을 非建設的으로 必要以上 使用하는 것 같다. 異質的인 言語 特히 日語들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그리도 거침없이 튀어나오나 싶다.

그분들의 品位마저 잃게하는 것 같다. 低俗하다 할까 卑俗的인 言動같기도 하다.

……다 같은 外来語인데 어떠냐…… 하는식 같다.

바빠서 일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일까, 아니면 精神이 解弛해져 서일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祖上들은 一日三省이라 했는데. 살펴가야 될것 같다.

○ 이 地球上에 우리祖上들은 어떻게 살아 왔나, 그 발자취를 알고 싶다. 오늘이 있음은 어제가 있음이니 내일이 있을 것이다. 과거를 알아야 이해하고 現在에 살면서 未来를 設計할 것 같다.

順天者는 興한다. 自然속에서, 하늘을 본받아 춥고 덥고 사시절이 分明한 世上을 다스리는 분이 계실 궁궐도 그에 따르고 위하여 지었다고도 한다. 이에는 土俗的 宗教的 哲学과 思想들이 같이 살아 그때그때 작용 표현되어 왔다. 이 시점에 선,

……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다 갈까…….

…… 모든 生滅 現像의 바탕은 마음에서…… 라면 恒常 그마음 가짐이 문제인 것 같다.

이 時間·空間이 要求하는 正義로운 마음이 가슴속 깊숙히 자리잡은 피의 人生権을 가졌으면 한다.

작고 크고 경중을 가리지 말고 어떠한 것에 있어서나한결같은 真心으로 誠実해야 될 連帯性을 잊어서는 안될 것 같다.

○ 韓国五千年의 文化를 자랑도 한다.

그간에 우리建築 伝統 問題가 크게 거론 되기도 했었다.

形態냐.

精神이냐.

간단치 아니한 문제다.

用語에 対하여서는 그렇게 논난 된적 없었던 것 같다.

建築(家)人은 知識人이라 한다. 그렇다면 中間的 達統者로서의 生産的 知識人이기도 하다. (24페이지에 繼續)